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 統一經濟

1997. 7 통권 제31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7 1997 第31號

편집자의 글 \_\_\_\_\_

4者예비회담이 본회담으로 이어지길 .....2

초 점 \_\_\_\_\_

북한은 스스로 변화되어야 한다 • 이태섭 .....5

특 집 \_\_\_\_\_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평가

김정일의 권력 기반과 인맥 • 유영구 ..... 14

김정일 권력 집단의 응집력과 내부 갈등 • 고유환 ..... 23

북한의 사회 변화와 김정일체제 안정성 • 서재진 ..... 34

기획연구 \_\_\_\_\_

북한 경제 개방 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 남궁 영 ..... 50

: 경제특구 정책을 중심으로

논 단 \_\_\_\_\_

통일 비용과 자원 조달 • 김 욱 • 황동언 ..... 78

나진 • 선봉지역의 시장경제제도 수용이 북한경제체제에 미칠 영향

: 중국 경제특구와의 비교 • 박정등 ..... 93

통일다리 \_\_\_\_\_

북한의 웃음극 • 김성진 ..... 103

북한경제 \_\_\_\_\_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Ⅱ)- '도로' • 박송동 ..... 109

통일연구 \_\_\_\_\_

통일 독일의 노동 시장 정책과 시사점 • 선한승 ..... 121

해외 기고 \_\_\_\_\_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 曹鳳琴 ..... 136

서 평 \_\_\_\_\_

'비교사회주의적 접근' 과 북한 연구의 결합 • 진희관 ..... 147

최 성(1997.2), 「북한정치사」, 「북한학개론」, 풀빛

통 권 제31호  
 등록번호 라-6925  
 발행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7년 7월 10일  
 편집 및 발행인 김종용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이우환 김정균  
 홍순희 오상교  
 이병무 이태섭  
 편집주간 심재철 황동언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사화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37-4006  
 F A X (02)730-1771  
 인 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666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4차례비회담이 본회담으로 이어지길

**치** 근 한반도에는 남북 관계 개선 및 북한의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확대 등 새로운 발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성공적인 남북적십자회담에 이어 대규모 식량이 전달되었고, 8월 5일에는 4차례비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은 지난 6월부터 나선지대내 자유 시장 개설과 화폐 개혁 등의 11 개항의 개혁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신도의 자유경제무역지대와 원산·남포의 보세가공지역 지정을 검토하였으며,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에는 북한 전역을 개방하는 외자 유치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적 변화 움직임은 김정일 사망 3년을 맞은 지금에 있어서 김정일의 조선노동당 총비서직 및 주석직의 승계와 맞물려, 향후 김정일 정권의 발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의 이태섭 연구위원은 '초점'의 "북한은 스스로 변화되어야 한다"에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장기간 생존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개방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은 그 동안의 대북 압박 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개방 유도에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호의 '특집'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변화를 조망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평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우선, 중앙일보사의 유영구 통일문제연구팀장은 "김정일의 권력 기반과 인맥"에서 김정일 사망 3년 동안 공식 승계를 미루어둔 채, 심각한 경제 불안정 속에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을 군부 중심의 측근 정치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근 정치는 권력 엘리트 내부의 이반과 반발 가능성이 높아 권력 유지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국대학교의 고유환 교수는 "김정일 권력 집단의 응집력과 내부 갈등"에서, 김정일 정권의 내부 결속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일체제와 오랜 기간 동안 구축된 후계체제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속 요인이 김정일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부족으로 인해, 체제 안정을 위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오히려 균열과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민족통일연구원의 서재진 박사는 “북한의 사회 변화와 김정일체제 안정성”에서 권력 기반을 엘리트 기반, 경제적·사회적·국제적 기반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기반의 변화가 권력 엘리트의 정치적 변화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서재진 박사는 지금 북한은 국가배급체계의 와해와 주민 의식의 변화, 탈북자의 급증, 북한 사회주의체제 존속에 대한 권력 엘리트들의 자신감 상실 등 일련의 사회적 동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동요로 소장파 주도의 정변이 발생하여 제3의 정권 탄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기획연구’에서는 민족통일연구원의 남궁 영 박사가 “북한 경제 개방 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을 경제특구 정책을 중심으로 특구 설치 배경과 외자 유치 계획 및 성과 등을 소상히 분석했다. 남궁 영 박사는 남한은 특구를 대북 경험 및 TRADP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의 계기로 활용키 위해 북한의 특구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논단’에서는 통일 대비 재원 마련과 나선지대의 시장경제제도 도입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원의 김 욱·황동원 연구팀은 “통일 비용과 재원 조달”에서 통일 비용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재원 조달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통일 비용 절감과 재원 조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경험 활성화를 통한 남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북한 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박정동 연구위원은 “나진·선봉지역의 시장경제제도 수용이 북한경제체제에 미칠 영향”을 소유 형태와 경제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특구와 비교·분석하였다. 박정동 위원은 지금의 제한적·소극적인 특구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 가격 기구에 의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변화되어, 자유로운 부동산 매매를 비롯하여 시장이 소비재와 생산재, 자본, 노동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의 김성진 전문기자는 ‘통일다리’ 코너의 “북한의 웃음극”에서 끼니조차 잇기 힘든 동토의 땅에도 경희극과 풍자극 형태의 희극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 코너는 독자들로 하여금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와 주체적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교육용 코미디가 일상 생활에 신

선한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환한 웃음으로 피어나게 되기를 갈구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북한경제'에서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을 소개하는 두번째 글로서, 본 연구원의 박송동 연구위원이 '도로'편을 실었는데, 박송동 위원은 철로 중심의 수송체계로 인한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은 향후 진행될 남북 경협이나 북한 경제의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달의 '통일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실장의 "통일 독일의 노동 시장 정책과 시사점"을 실었다. 선한승 실장은 통독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 사태의 원인과 실태, 해결책으로 제시된 연대협정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 시장의 인프라 구축 및 교육시스템 구축 등 보다 신중한 통일 준비와 함께, 최대한의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해외 기고'에서는 중국 길림성사회과학원 曹麗琴 교수의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을 실었다. 향후 한반도는 언제라도 다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조려금 교수의 전망은, 그가 북한에 인접한 중국의 학자라는 점에서 더욱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8월의 4총예비회담을 앞둔 지금, 매우 성급한 기대이기는 하지만 예비회담이 본회담, 나아가 남북한당국자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 주민들도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와 함께, 남북 분단의 책임국이기도 한 중국이 4총예비회담의 막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러한 희망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1997년 7월

편집자